

2016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53rd KLA General Conference

변화하는 도서관, 세상을 리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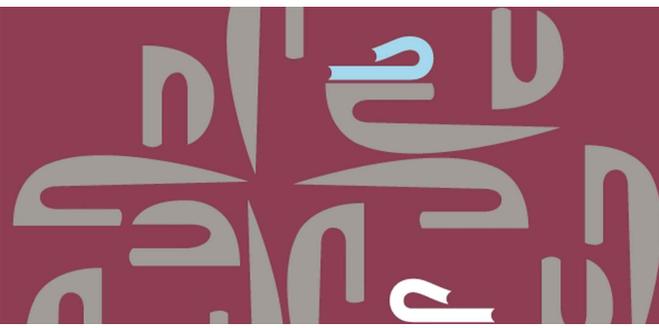
포럼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2016년 10월 27일 13시 40분
대구 엑스코 전국도서관대회장 324B호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6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53rd KLA General Conference

변화하는 도서관, 세상을 리드하다

순서

-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 박소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
 - 김경희(대구 책마실도서관 관장)
오은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사업팀장)

- 사회 - 박미숙(책놀이터 작은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

박 소 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 목 차 •

1. 서론

2. 본론

2-1. 시대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요구

2-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2-3. 현 시기 작은도서관의 역할

2-4. 질적 성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의 방향

3. 결론

제1장 서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000개의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작은도서관 6,000여 개와 어린이도서관이 90개에 이르니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도서관은 수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결과에 기뻐하기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전히 책을 읽는 인구는 늘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양태가 자기계발서와 학습서에 치중되어 있거나 학령기와 취업기에 몰려 있는 독서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하 소장은 우리 국민의 독서 유형이 간헐적 독자층이 많으며 습관적 독자층이 얇은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그동안의 수적인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이란 가장 우선적으로 첫째, 전국적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것도 아주 빠른 시기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바일 기기를 취하고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즉 정보의 대중화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¹⁾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5.2)에

1) 법률 제12738호

2)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의하면 도서관의 설치와 관리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그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법제화에 따른 지원 정책의 마련을 들 수 있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지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주거형태의 변화와 주택법에서의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에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수가 확대되고 있는 점과 여전히 전체의 30% 수준이지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2015년에는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에 비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는 90년대 말과 2000년 초기에 조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바라본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된 상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향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의지만을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작은도서관의 장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마을사업과 연계되어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역할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작은도서관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p.27. p.29.

2. 본론

2-1. 시대 변화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요구

현재의 작은도서관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 뿌리가 되었던 고 엄대섭의 1960년대 문고 운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마을 도서관 건물 구실을 하는 문고함

둘째, 마을 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독서회

셋째, 쉽고 유익한 도서 4)

위의 내용을 갖추고 문고의 성패 여부를 위해 세 가지를 실행할 수 능력을 함양할 것을 교육하였다.

첫째, 경로운동으로 노인들을 이해시켜라

둘째, 책 읽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는 칭찬이 나오도록 하라

셋째, 집안과 마을의 분위기 명랑화에 앞장서라⁵⁾ 이러한 마을문고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도서관이 육성되는 것,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 체제로 편입되는 것, 마을 문고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었다.⁶⁾ 그러나 엄대섭의 문고운동은 1981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회원단체로 흡수되어 현재까지 새마을 문고 또는 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지원하에 조성되고 운영된 새마을문고는 공공의 시설 (과거 동사무소 등) 안

4) 이용남. 이런 사람 있었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p.62.

5) 전계서. p.79.

6) 전계서. p.166.

에 존재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지만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이끌거나 국민의 독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새마을 문고 활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당사자 중심의 독서운동의 활동 공간이 되었던 70년대말 부산 양서협동조합, 1980년대 노동도서관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익히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 및 배움에 대해 갈망이 있던 그 당시 노동자들의 야학등과 더불어 만들어지고 활동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사회에 대한 판단의 시선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장(場)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권의 주목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이후 한국 사회는 비약적인 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민선정부의 등장, 각종 노동조합의 결성, 언론과 출판의 확대, 환경운동 및 경실련과 참여연대등의 시민운동 조직들의 공개적인 활동 및 시민 참여적 단체 활동의 활성화, 지역 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모색을 이루어내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창원의 마을도서관 운동과 서울 난곡주민도서관(현재 난곡 새숲작은도서관)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고 운동이 만들어졌다. 지역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된 작은도서관의 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시기였으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90년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작은 공간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읽을거리를 마련하고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동아리를 형성하게 되며 이 공간을 함께 운영해 가는 자발적 활동의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

들어가는 지역 축제 및 다양한 시민 강좌를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의 주인이며 주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기회와 삶의 공간을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들에 힘을 모으게 된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화적도인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 속에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우 1관당 인구수가 33,468명이 고 영국은 13,589명 , 일본은 39,813명에 비해 한국은 2012년에 들어서야 공공도서관의 개소수가 786개로 1관당 인구 64,547명으로 보고⁷⁾ 되었다. 이러한 부족한 도서관의 수를 작은도서관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4년 문화관광부의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21: 문화비전」을 통해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으로 제시되어 복권기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시범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운영되어 2008년 해체되기까지 작은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실인 문고”로 명시하였다.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이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처음 사용되었다.

2014년 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나갔다. 새롭게 추진되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도서관 시설·장서·인력배치 기준의 정비,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정책추진체제의 정비와 관종 구분의 재설정,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개선 등에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2007년 도서관법 개정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7) 2012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왔다는 것과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제정 , 대학도서관 진흥법의 발의, 장애인도서관진흥법의 제기 등 관종별로 분법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현재 통합법적 성격의 도서관법을 관련법제 운영 체계와 연계하여 기본법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⁸⁾이라는 것이다.

2016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대한 검토와 운영과 폐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 도서관으로 도서관이 갖는 일반적인 정보센터, 문화활동, 독서활동, 평생학습의 기능을 요구 받음과 동시에 지역과 가장 밀착도가 높고 이용거리가 가까워 가장 편하게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의미하게 된다.

2-2.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간 작은도서관은 수적 확대를 이루어왔다.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5,595개로 조사되었다. 1관당 연간 이용자 수는 평균 6,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 권수도 1관당 평균 4,436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735개관으로 최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494개가 신규 개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 증가세는 하락하고 있는데 휴·

8) 정현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2014.7.2. 발표자료 중에서 인용

폐관 도서관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⁹⁾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요구하는 지점이 있다. 즉 201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에 영향을 미친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 운영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남긴다.

이에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 대비해 운영 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개선책으로 첫째,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개선하고 둘째,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 시스템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 차등 지원 및 우수 작은도서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셋째, 공공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확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3개지역('14년) → 6개 지역('15년) → 17개 지역('18년) 넷째, 작은도서관 관리지침 개발·보급 및 교육을 정례화하고 다섯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¹⁰⁾ 지원 확대 (50명(14년) → 150명('15년) → 400명('18년)) 및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의 중요 세가지 방향을 정리해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상향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을 정비하며, 시범지구 및 순회사서의 사업을 확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서

9)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p. 82

10) 순회사서:도서관 운영,대출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1명이 4개관 순회)

관 종합발전계획 (2013~2017)¹¹⁾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

-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조성된 작은도서관
-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에 대해 침해되지 않으면서 도서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식정보를 제공할 공공성의 원리가 적용되며 알 권리를 제공할 공개성의 원리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해야 할 공비성의 원리가 지켜지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도록 도서관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2010년부터 예산 투입, 운영비 지원
 - 2012년 ‘작은도서관 도민사서’ 시범 추진
 -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인 도서정보, 전자정보, 학습 공간등을 제공하되,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의 수서, 목록,정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을 통해 마을의 정보센터로서 수행
 - 사립작은도서관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

11) 경기도청 도서관과. 2013~2017 경기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2012

공성 강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 방향을 가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작은도서관에 선택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마련

②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우수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지원(자료·기자재·물품·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

③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성화 체제 구축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하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양성 교육을 실시

④ 작은도서관 운영을 총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유도하고, 기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

전국에서 기초 자치구중 가장 작은도서관이 많은 곳은 광주 북구로 142개인데 그 중 120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광주는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에 2014년부터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표1.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컨설팅 (자문) 분야¹²⁾〉

분야		내용	컨설팅 (자문) 위원
구성 분야	작은도서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도서관의 등록·설립 요건 내·외부 리모델링 및 공간구성 운영 기본 소양 및 방향 설정 구성사례 등 전반적인 설명 	2인
운영 분야	장서 선정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아동, 성인, 청소년 등 대상별 장서 선정 각 대상의 시기적 특징, 참고사항 장서 선정방법 및 참고 도서, 사이트 제시 	2인
	자료 정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활용 방법 장비 작업 및 용품 설명 자료의 보수 용품 및 보수 방법 설명 자료의 제적, 폐기 관련 조언 	대표팀
	독서·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진행 프로그램 홍보 방법 및 사례 타 지역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축제 제시 	3인
행정 분야	자원봉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구성 방법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방법 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 시 유의사항 	2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는 수적으로 확대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실태조사를 정량화하고 이에 따른 우수 운영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 마련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의 목적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

12) <http://gwangjusl.kr> 홈페이지 참고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을 통해 이제 작은도서관은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임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안에 안착되기 시작한 작은도서관은 90년대 말과 2000년 초기 형성의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거나, 성인 위주의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인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독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선진국들에 비해 독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2년 한 방송사와 함께 진행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대두 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따라서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1개의 구축이 갖는 다각적인 검토가 부진했다는 것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성장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성 이후 운영에 대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검토와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지방자치의 사무로 이관된 이후 공공도서관 운영이 기존 교육청 도서관에서 담당했던 부분과 자치단체 소속 시립, 구립도서관의 운영이 지역 안에서 중복 및 혼선을 빚는 경우가 생

겨났으며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가고 있는 고민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수적 확대는 공공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계획에서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한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막지 못했다. 건축법상에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 조항은 작은도서관의 비약적인 수적 확대에는 역할을 했지만 설치 기준만을 명시한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두고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사적 공간인 아파트 내에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의 의무 설치로 인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아파트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단지에 맞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나를 돌아보게 한다.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이후 2013년에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이 확대되는 요인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장에서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로 개관은 쉽게 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으로 정해진 운영 규칙에 맞게 운영 시간 내에 상시 개방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원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2013년부터 실시된 운영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운영평가를 통한 지원에서 지역마다 또한 운영 주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현 시기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의 하중을 모두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인하여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확대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 필요성 및 차별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를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문고의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처럼 4,000여개에 달했던 가정 문고가 공립도서관으로 유입되어지면서 사라지거나 동경어린이도서관처럼 통합되는 경우의 사례를 생각해 한다.

민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좋은 사례들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공립작은도서관이 가진 공간 및 예산 확보의 안정화가 뒷받침 된다면 더욱 발전된 작은도서관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적 시민 의식을 고양 시키고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쌓게 되는 시민과의 만남의 접점으로 작은도서관이 부설로 많이 조성되었다. 시민 단체 내 활동가들이 도서관 전체 운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보다 운영자 확보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덜할 수는 있으나 비영리로 운영되고 회원들의 후원으로 자생하는 시민단체의 구조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별 바 다르지 않다. 또한 단체의 지향점과 공공도서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상호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수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공동 분담을 통한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

기되고 있다.

종교 작은도서관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및 운영자의 마련, 공간이 종교시설과 별도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겪고 외면하는 등, 등록은 되어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인의 이용 시 종교시설이 갖는 선입견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운영 주체는 직접 직영하는 경우 사서 1인이 운영하는 체계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기간제 상근 인력의 배치나 자원활동가를 통한 운영을 하고 자치단체 대표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상근전담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밀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립작은도서관 인력 배치¹³⁾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도 무급 관장 (명예 관장) 1인과 사서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로 살펴 본 어려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전담인력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작은도서관 향방에도 결정적 키워드가 될 것이다. 과연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체성을 현시점에서 다시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기간 작은도서관 앞에서는 다양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왔다. 작은도서관이 가진 역사적 상징성과 더불어 지역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

13) 2015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4개 기초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평균 직원이 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며 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주체 또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 및 현재 운영자 및 인력들이 느끼는 많은 피로감은 누적되어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이 문제 해결 지점에서 개별화 되어 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개별화 되어 있다. 평가는 개별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한 지원이 우수성을 인정받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 추구하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회복, 그를 위한 책읽기의 권장, 다양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 사업등을 통해 우리는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현 시기 작은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2-3 현 시기 작은도서관의 역할

작은도서관의 최대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로 접근성과 이용자에 대한 밀착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소통을 이끌어 내고, 협력하며 개인의 발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의 작은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즉 민간에 의해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은 발전해 왔으며 공공도서관의 한몫을 담보하고 성장해 왔다. 그러나 수적인 성장이 가져온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밀착된 이용자와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예산 지원은 빈약하며 작은도서관의 성장을 위한 공적인 자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

까움에서 비롯한다.

정보사회로의 진입의 결과 사람들은 인간과 기계의 승부를 경험하며 무서운 속도와 방대한 양의 정보 앞에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사회 변화의 책임을 많은 부분 개인이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속에서 오늘도 공공도서관에서는 개인적 학습과 취업 준비로 경쟁적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

공공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은 선별된 대상에 맞는 좋은 책을 안내해 주는 곳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작은 공간 안에 모든 책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 이용자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도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에게는 더욱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독서 습관 확대 및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책 읽어주기 활동,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책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기획력을 높여야 한다. 책 읽는 시민은 깨어 있는 시민이다. 지역 사회 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서관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바로 이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민 의식 형성하여야 한다.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의 주인으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활동, 운영위원회 참가, 동아리 활동, 인문 강좌 참여를 통한 시민 의식 성장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써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스스로 모여 책을 함

게 읽고, 지역의 문제들에 관심과 참여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이웃이 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와 돌봄의 기능을,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배움터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억 저장소로,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삶의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지지자를 만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마을의 텃밭을 가꾸며 도시 속에서도 친환경적 삶과 생산의 가치를 일깨우고 했으며, 지역 역사를 보존하고 전하는 역할, 마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등이 진행된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역할일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실험적 역할은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확대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모아져야 한다. 따라서 개별 작은도서관의 우수한 성과들은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관계는 어떠한가 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미국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유지·성장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협력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표2. 작은도서관 지속적 유지·성장을 위한 7가지 조건 (미국)¹⁴⁾〉

조건	내용
도서관 컨넥션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들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술 컨넥션	집안에서 집 밖에서 연결이 가능한 기술적인 지원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목록 조사,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14) 최미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직원과 이용자 교육	직원 교육과 교육 자료, 이용자 교육
자금조달	보조금, 기프트/ 도네이션, 기금 조달자, 다른 정보원들
아웃리치(Outreach)	평가, 진흥,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필요함
지지	도서관이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의 제휴/협력

이 자료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도서관 컨넥션과 자금조달, 지지에 대한 부분은 작은도서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의 내용이라 보여진다. 또한 도서관이 도서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여타 기관과의 협조 하에 공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기에 중요한 점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원 하에 수행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행사 중심의 단기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연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계획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은도서관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이 공모식 경쟁에 의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으로 진행되는 방식과 이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피로감과 사업의 의미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2-4. 질적 성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의 방향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에게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정치적 상황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및 중요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구성에만 치중하는 편향성이나 향후 운영에 있어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운영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의 진행 등 작은도서관 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이 단순히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진행된다면 작은도서관 조성의 의미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지원 조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강원)

-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

지원의 형태를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살펴본 바

- 서울 : 2015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담사서 배치

- 경기도 : 따복 공동체 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결합 - 지원·공모 방식

- 인천 : 10개 구·군 평가 결과에 따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금 매칭

- 광주 : 마을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결합 - 2016년 10억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조사 및 각 자치단체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원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목적 :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운영 실태 조사 :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 (즉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 평가 항목 : 지역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점이 필요, 매년 평가 항목 제안을 위한 협의가 필요, 지역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적극 참여

운영 실태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전년도 운영을 기준으로 1차 작은도서관 운영자 2차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관리자 (공무원, 사서 포함)가 진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운영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6개의 등급으로 (A~F등급) 구분하여 진행하고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평가 항목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가 포함되고 있는데 점수에 대한 배점과 평가 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위 등급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지역 내 작은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의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성립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듯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 수립에 있어 향후 정리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가능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마련이다.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운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도서 정책 및 지역 안 상호 교류 시스템 마련이다.

대부분 작은도서관 지원은 이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교육 지원외에 없는 실정이다. 사람이 없으면 즉 운영자가 없으면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 사업인 순회사서의 역할이 많은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장기적 운영을 고민하고 상시 인력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아님에 따라 일을 위한 일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관리 운영에 대한 정비 및 법제화 특히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비 조달 방식에 대한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의 확보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장점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의 공간, 평생학습의공간, 마을공동체의 공간 등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이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담아야 하는지

는 의문이다. 각종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유지를 위해 하는 지원 사업인지, 작은도서관의 목적성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인지 전·후가 바뀐 상황 속에서 활동이 활발한 작은도서관 일수록 각종의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1년을 다 채워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결과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업 진행을 하는 동안 이용자를 대상화하고 본질을 상실한 채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치도록 바쁜 일상들을 살아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장점을 살리는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원에 방식에서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지역 안에서 작은도서관간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2년 후 일몰제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즉 2년 연속 지원을 받으면 1년 동안은 동일 사업에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작은도서관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함께 논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협의회 소속 40여개의 작은도서관들이 상호 협조적인 지역작은도서관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 작은도서관 공모식 지원 사업의 방식에서 우리 스스로 공동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싶다.

3. 결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중 가장 주민과 밀착된 서비스 포인트이다. 이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사회는 개별화되고 경쟁적 구조하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공도서관의 개인 열람실 논쟁이 한참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개별화된 학습을 위한 공간은 모든 삶의 책임이 개인화 되어 있는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사회 현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책 읽기를 하고,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익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의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방법을 널리 익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읽을 만한 좋은 장서를 갖추고,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비슷한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작은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에서 조차 주민들을 객체화 시켰을 때 공공도서관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용자인 주민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간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삶, 바로 공동체의 복원이 바로 지금 사회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마을 사랑방이며 마을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져야 한다. 주민의 자발성은 스스로 질문하고 학습하며 답을 공동으로 찾아나가는 경험 속에 성숙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훈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파괴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며 사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강요되는 자기계발적 독서, 독서 이력제, 독서 인증제, 독서 자격증 제도등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지도사, 책놀이지도사, 북큐레이션 자격증, 그림책 지도사 등의 방식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으고 교육하는 과정에는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북유럽 도서관 방문을 했을 때 핀란드 공공도서관 한 관장은 2018년에 개관할 핀란드 대표 공공도서관의 비전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Learning space(배움): 인터넷 러닝, 강좌, 북토크

Inspiration space(영감): 모험, 예술, 음악, 게임, 이벤트 등

Meeting place(만남): 정치인과의 만남, 지역독서클럽, 네트워킹

Performing place(창조): 창작 작업, 글쓰기 워크샵, 영화와 연극클럽, 지역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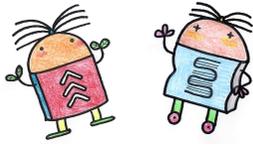
스스로 배우고, 책 속에서 영감을 얻고 문화적 매체를 익혀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그룹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갖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창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이러한 비전이 구현되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인 공공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생각이라고 한다.

정보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정보가 손쉽게 공유되어 지는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갈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관계’와 ‘소통’이라고 한

다.

작은도서관을 이용자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작은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 성장할 수 있어 좋았다고 그래서 진정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에는 분명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관계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이 이루어 낸 성과가 사회적으로도 진정 올바른 가치이고 행복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이 공간이라는 의미만을 남길 때 이용자들은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때이기 때문이며 이를 항상적으로 고민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사업에 지치지 않고 본연의 역할, 소통과 관계 맺음의 중심적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의 정책적 제도적 방법을 찾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1세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걸어온 길

- 1998. -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 1999. -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발간
- 2001. - 어린이도서관용 분류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2004. -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광부 제3호)
- 2005. -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문광부에 등록
- 2006. -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 출판
- 2007.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승인
- 2008. - 마포구 작은도서관 6개관 수탁운영, 시민사서 교육
- 2008. - 전국 어린이책 잔치 한마당 지원(전국 10개 지역)
- 2009. -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문헌 및 사례연구
- 2010. - 전국 어린이 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연구
 -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2011. -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
- 2012. -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2012. - 청소년 인문학 소풍

-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2013. -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수탁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청소년 인문학소풍 /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옴니버스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를 위한 도서관학교(서울 4 개 권역)
- 2014.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청소년 인문학 버스
 - 책꾸러미 둘러보기 /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 도서관학교 진행 / 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학교
- 2015.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법인명칭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회원워크숍‘향’ 진행/ 서울SH작은도서관 3개관 위탁 운영,
 -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책친구
 - 북유럽 3개국 도서관 탐방(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 ‘작은도서관이 말하는 작은도서관’ 도서관학교 진행
 - 작은도서관포럼 ‘공동주택(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방향성’

구성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총 10개 지부(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광주, 대구, 경상, 서울, 인천, 충청, 호남)와 총 5개 지역협의회(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를 포함 총 218개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진은 이사장 1인, 이사 8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은 정책기획팀, 회원사업팀, 회계행정팀과 어린이서비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진행

■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 진행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실무자를 재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정책 제안과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공공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례를 교류

■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2009년 『어린이도서관의 수서』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책 활용』

『작은도서관과 공립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현황과 과제』

『작은도서관과 공립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사례발표』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전국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2011년 『도서관, 지역문화예술과 만나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간 도서관』

『광주비엔날레 동화나라 만인보』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

2012년 『도서관, 청소년과 소통하다』

-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작은도서관의 내일을 말하다』
-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네트워크』
- 2015년 『2015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방향을 묻다』
『2015년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푹.푹.푹 결과자료집』

■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및 도서관 지원사업

-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둘러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푹푹푹’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문화예술 강사들을 파견해주는 사업

■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주 2-3회 독서활동가가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포럼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자리



서울어린이안락도서관협회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01호)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홈페이지	smalllib.org		